

청일강화기념관

일본과 청나라(중국)의 청일 전쟁(1894~1895)을 종결시킨 시모노세키 조약을 기념하는 박물관입니다. 이 조약은 일본과 청나라의 정상의 한 달에 걸친 협상을 거쳐 체결되었으며, 일본이 영토를 확대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재정의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념관에는 전쟁과 전쟁의 종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문서 및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조약이 협상되고 조인된 회장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청일 전쟁

일본은 메이지 시대(1868~1912)에 근대화를 시작했으나 이미 구미 제국과의 사이에서 불리한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위상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거점으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한 것입니다.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며 농민들이 무장봉기하여 정부에 맞서자 중국은 군대를 파병하여 조선정부군을 지원했습니다. 일본도 이에 대항하여 자국군을 조선에 파병했고 이것이 청일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일 전쟁은 주로 한반도에서 벌어졌지만, 전투는 중국 본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은 우세하게 전투를 이끌어갔으며 만주의 중요 항구인 다롄까지 점령했습니다. 1895년 2월에 양국은 평화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고 시모노세키에서 평화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평화 협상(청일강화회의)은 1895년 3월 20일, 순판로라는 호화로운 료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정치인 이홍장, 일본 측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총리와 무쓰 무네타카 외무상 등 양국 대표단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국군을 완전히 물리침으로써 일본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홍장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급진파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외국인 빈객을 지키지 못한 일본의 실태는 협상에서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양국은 정전에 합의하고, 1895년 4월 17일에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독립 승인, 영토 할양, 배상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은 명확히 전승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수 세기에 걸쳐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군사력과 문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는 일본에 추가 영토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 자원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기념관

이 기념관은 1937년 협상에 사용된 물품들을 전시하기 위해 순판로 료칸의 부지 내에 세워졌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기념관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 주문 기와가 덮여 있습니다. 내부에는 회의실이 재현되어 있고, 주변 복도에는 평화 협상과 그 계기가 된 전쟁에 관한 자료 및 사진 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피닉스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천 커버를 씌운 유럽식 의자는 일본 정부가 영국에서 특별 주문한 것입니다. 이 의자들은 대표단이 실제로 앉았던 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놓인 필기도구와 프랑스제 난방용 스토브도 실제 회담 때 사용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시모노세키 공습에서 이 건물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아카마 신궁은 거의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이 회관이 지하 콘크리트 벙커에서 신사의 신체(신이 깃든 물체)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신 덕분에이었다는 현지 일화도 있습니다.